

색소폰 연주하며 지역민에 더 가까이

화순농협 임직원들 15명
지역행사·축제 초청 불꽃
농산물 판매·홍보 활용도



이형권 화순농협 조합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농협 직원들이 최근 전남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개점 7주년 경품추첨 행사장에서 색소폰 연주로 분위기를 흥겹게 달구고 있다.

“조합원과 지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싶은 마음에 색소폰 연주를 배우게 됐습니다” 전남 화순농협 임직원들이 틈틈이 배운 색소폰 연주로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형권 조합장과 화순농협 직원 15명은 올해 초부터 매주 두 차례 업무가 끝난 후 농협 문화센터에서 색소폰 연주를 배우고 있다. 이들의 첫 무대는 지난날 9일 열린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개점 7주년 경품추첨 행사와 ‘제9회 더위야 얼음까지 행사’에서 빛을 발했다.

화순농협 색소폰 연주단은 조합원과 고객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머나먼 고향’, ‘동백 아가씨’ 등 다양한 곡을 20여 분 동안 흥겹게 연주했다. 첫 연주였지만, 앙코르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대성공이었다. 이날 몇몇 마을 영농회에서는 축사에서 마을행사 등에 초청연주를 부탁하기도 했다. 행사장에 참여한 여성 고객 김수영씨(화순읍 삼천리)는 “농협 직원들이 이렇게 색소폰까지 훌륭하게 연주할 줄은 몰랐다”면서 “농협에 대한 친근감이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활짝 웃었다. 최봉식 영농회장(화순읍 수만리 3구)은 “연주를 들어보니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이었고 직원들의 연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 보였다”면서 “올 가을 마을에서 열린 예정인 ‘가을들국화축제’에 농협 연주단이 꼭 와서 연주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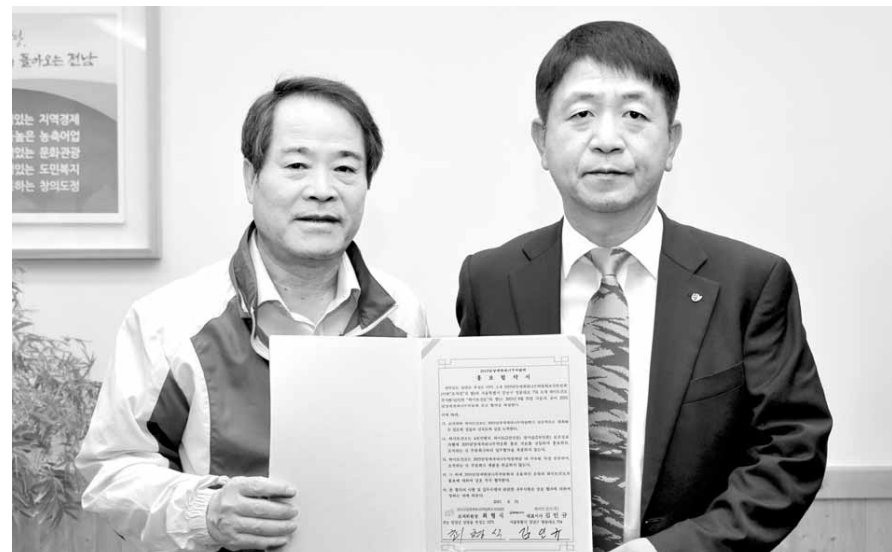
이형권 화순농협 조합장은 “올해 초부터 일과 후 직원들이 모여 취미생활과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색소폰 연주를 배우고 있는데 첫 무대에서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이후 여러 곳에서 무료 공연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색소폰 연주를 지역 농산물 판매·홍보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에 전국 유일 민간 우표 박물관 개관

대전면 대치리에...이진하씨 40년 모은 1만여점 전시

담양에 우표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민간 박물관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담양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박물관은 민간에서는 유일한 우표 박물관이다. 지난 3월 14일 임시로 문을 열었으며, 지난날 18일 전남도에 등록돼 정식 개관했다. 조각가인 나상국(67)씨의 아내 이진하(50·여)씨는 남편의 조각 작업실을 일부를 리모델링해 우표 전시공간을 만들고, 자료실과 수장고도 갖췄다. 일반적으로 우표 수집가들은 탈색 등의 우려 때문에 우표 전시를 꺼리지만, 이씨는 잊혀져 가는 우표를 이웃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시를 결심했다고 한다. 우표 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어린 시절 새 우표가 나오는 날이면 언니, 오빠들과 함께 아침부터 우체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우체국 가는 길은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웠다”면서 “우표가 통신 수단의 변화로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현실이 안타깝게워 훼손을 각오하고 더욱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외당의 잔디밭을 지나 ‘우표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간판이 걸린 내부로 들어선 소박하게 꾸민 전시공간에서 이관장 부부가 40여 년간 모은 우표들을 만날 수 있다. 엄서 크기의 ‘연하 우표’, 가장 오래된 ‘문위 우표’, 해방·헌법공포·88올림픽

픽 고속도로 개통 등을 기념하는 우표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담긴 우표 등 1만여 점까지 모은 우표가 있다고 이관장은 소개했다. TV프로그램 ‘진품명품’에 소개된 것과 같은 종류의 우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우표 등 희귀 우표도 많다. 이관장은 올해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기간동안 우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우취인’들과 함께 초대전도 열 계획이다. 박물관을 우표 애호가들의 사랑방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관장은 “전시하지 못한 우표들이 많아 계절별로 전시물을 바꾸고 손전등 등 프로그램도 진행해 우표의 가치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대나무박람회조직위-하이트진로 협약

주류 4000만병에 박람회 홍보 문구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박람회조직위)는 1일 “대한민국 최대 종합 주류기업인 하이트진로(주)와 상호 홍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보 협약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와 홍보를 위한 것으로 최형식 조직위원장(담양군수·사진 왼쪽), 정재덕 하이트진로(주) 홍보권역 본부장(오른쪽)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청에서 진행됐다. 홍보 협약에 따라 하이트진로(주)는 하이트 맥주, 참이슬 등 주류 4000만병의 보조 라벨에 박람회 관련 문구를 삽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홍보하고, 박람회조직위는 하이트진로(주) 측에 박람회장 내 주류 공

급권을 제공하게 된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주)에서 시판하는 참이슬이 대나무 숲 정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러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박람회 홍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홍보가 중요한 만큼 이번 하이트진로(주)와의 홍보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담양군과 산림청, 전남도가 공동주최하며, 참이슬 등 주류 4000만병의 보조 라벨에 박람회 관련 문구를 삽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홍보하고, 박람회조직위는 하이트진로(주) 측에 박람회장 내 주류 공

화순공공도서관
‘독서의 달’ 9월
다채로운 프로그램

화순공공도서관(관장 정혜란)은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로서로 독서로’라는 주제로 지식키움, 감성키움, 행복키움, 재미키움 등 4개의 테마로 진행된다. ‘인권도서 전시 ‘인권이, 놀자!’를 시작으로 한눈에 작품전, 독축은 그만! 연재를 풀어주세요~, 자동대출반납기 응모권, 책드림(책선물) 이벤트 등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독서의 달과 어울려 도서관 앞 마당에서 펼쳐지는 행복킴터, 가족 나들이 행사를 마련해 ‘나비풍선 만들기’, ‘넵!넵!’, ‘천연비누 만들기’, ‘다문화 인형극’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주말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혜란 화순공공도서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친근한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서의 달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문의는 화순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소식(http://www.hwasunlib.or.kr) 또는 종합자료실(061-372-053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의 성자’ 이세종 선생 생가 복원 도암면 등광리서 준공식

화순의 성자(聖者) 이세종(1879~1944) 선생의 생가가 복구됐다. 화순군은 최근 도암면 등광리 생가에서 ‘성자 이세종 생가 복구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사진>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와 이세종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문화재에방관리센터가 주관한 준공식에는 신정호 국회의원, 구중근 화순군수, 이선 화순군의회의장, 문행주 전남도의원,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성자 이세종 생가 복구사업’은 김성인 전 이세종 생가 복구사업 추진위원장과 전남문화예술회관의 지원으로 시작됐으며, 2013년 10월부터 문화재에방관리센터의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도암면들은 건축자재와 공사비를 기부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의 초가집이 완성됐다. 1879년 도암면 등광리에서 출생한 성자 이세종은 머슴살이를 시작으로 등광리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뒤 40살에 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인물이다. 그는 금욕·금음·금식의 절제된 삶을 실천하

며, 전 재산을 빈자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실천했다. 특히 선교사의 전도활동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통한 독수도로 깨달음은 얻은 뒤 성자 이현필, 강순명 목사 등 호남의 대표적 영성가들을 걸러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투데이 옥션
부동산경매 추천물건

광주 두암동 주유소부지
4차선 대로변 코너 위치 아파트와 주택가 상권 신축 건물부지적합
대지 677㎡ 건물 350㎡
감정가 11억 8천 최저가 11억 8천

광주 동구 학동 근린건물
전대병원 맞은편 위치
병원,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추천
지하 2층 ~ 지상 5층
대지 456㎡ 건물 1779㎡
감정가 23억 2천 최저가 16억 2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5번차로 공장
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3495㎡ 건물 2308㎡
감정가 19억 7천
최저가 13억 8천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광주 북구 각화동 상가건물
각화동 급호타운 맞은편위치
요양병원 추천, 지상1층 ~ 지상3층
대지 1115㎡ 건물 1749㎡
감정가 22억 3천 최저가 15억 6천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다이아 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평동공단 공장 대 1,650㎡, 건 920㎡ 매 11억7천만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서창동 토지 12,000㎡ 매 38억(타운하우스 최적)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동명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1,400㎡ 매 23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답 1,000㎡ 매7억6천만원(고물상, 투자적합)
- 벽진동 1층주거지역 대지 840㎡ 3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 10억5천(창고, 차고지 적합)
- 수북면 대방리 4,641㎡ 매 8.4억(전원주택부지 적합)
- 담양군 봉신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 (주말농장, 가족모 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SANGMU BUSINESS CENTER
비즈니스의 새로운 환경을 열어줍니다.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103(치평동 1210-4)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본사 062)382-03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T. 062)381-5551 F. 062)384-5551